전남광주 전기차 충전시설, 교통약자 배려 '낙제점'

공공 급속 1102대 중 편의기술 적용은 372대에 불과
민간시설 통계 없어 실태 불명…구체적 기준도 미비

전남광주지역 전기차 충전기가 3만대를 넘어섰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를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과 설치 현황을 파악할 통계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설치한 지역 공공 급속충전기조차 편의기술 적용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데다 민간시설은 현황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보급 확대와 함께 실제 이용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광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공공·민간 급속·완속을 합쳐 3만3983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는 1102대, 교통약자형 편의기술이 적용된 충전기는 372대였다.

공공 급속충전기 대비 적용률은 33.76%로, 전국 평균인 37.27%보다 3.51%p 낮았다. 나머지 730대(66.24%)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

편의기술 적용이 확인된 372대는 지역 전체 충전기의 1.09%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 확인된 대수를 전체 충전기와 비교한 것으로, 민간 충전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률이 아니다. 민간시설의 교통약자 배려 여부를 보여주는 별도 통계가 없어 지역 전체의 충전 편의 수준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전기차 충전기 54만1567대 가운데 편의기술 적용이 확인된 공공 급속충전기는 3526대로, 전체 대비 0.65%였다. 정부가 직접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 9460대만을 기준으로 하면 적용률은 37.27%다. 정부가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적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영역은 통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충전기 보급 대수만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충전기에 접근하려면 주차면과 이동 통로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차량에서 내린 뒤 충전기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야 한다. 조작 화면과 결제장치의 높이를 낮추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거나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이동을 막으면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기후부의 '교통약자 편의기술 관련 구매 규격서'에는 2019년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구매 시 교통약자 편의기술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해 한국환경공단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 현황을 제공해야 할 정보체계도 미흡하다. 확인 결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비율은 관계 부처뿐 아니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합누리집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항목도 '편의 제공 여부'에 그쳐 어떤 시설이 갖춰졌는지, 교통약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해철 의원은 "무공해차 전환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2035 NDC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교통약자와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성과를 낸 지자체 우수사례를 중앙정부로 이식하면 기존 마련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통계조차 없는 민간 충전기 현황부터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향후 충전시설 확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가마솥에서 찐 옥수수·군밤 선봬 ㈜광주신세계가 오는 15일까지 '조선가마솥 옥수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가을에 먹기 좋은 간식으로 옥수수와 군밤을 선보인다. '조선가마솥 옥수수'는 강원도 옥수수를 가마솥에서 갓 삶아 내 더욱 고소한 옥수수와 최적의 온도와 시간으로 구워 은은한 단 향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군밤을 판매한다.

광주경총, 제조업 안전지원금 최대 300만원

20인 미만 사업장 추가 모집…시설 개선비 지원

광주지역 소규모 제조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시설 개선 지원금이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현장의 안전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참여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광주지역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작업장 내 위험요인 제거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소규모 제조업체가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도 비용 부담으로 시설 개선을 미루지 않도록 전문가의 진단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작업환경에 맞춰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제조업체 지원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실제 안전설비 구축 비용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총은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을 거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원 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면서 참여 기업은 안전장비 구입과 시설 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50만원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 요구한 설비 개선 비용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선정된 사업장은 전문가의 현장 안전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비 구입과 시설 공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컨설팅으로 확인한 위험요인을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만큼, 참여 업체는 작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체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사업본부(062-608-9934)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롯데마트·슈퍼, '첫수확 찰진8곡' 출시

국산 햇곡 8종으로 확대…용량도 늘려

롯데마트·슈퍼가 올해 수확한 국산 햇곡 8종을 한 봉지에 담은 잡곡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마트·슈퍼는 2026년산 국산 햇곡으로 구성한 '첫수확 찰진8곡'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선보인 '첫수확 찰진7곡'의 구성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곡물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존 7곡에 귀리를 추가해 8곡으로 구성했으며, 용량도 2kg에서 2.7kg으로 늘렸다. 지난해 상품의 판매 호조에 따라 올해 준비 물량도 2배 확대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위해 출시 약 6개월 전부터 일부 주요 산지와 사전 계약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햇곡 출하 시기에 맞춰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곡물 구성은 찰진 식감에 초점을 맞췄다. 현미와 귀리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곡물에 찰보리와 찹쌀, 찰흑미 등을 함께 배합해 잡곡밥 특유의 거친 식감을 줄이고 부드럽고 찰진 식감을 구현했다.

원물은 전국 주요 산지에서 수확했으며, GAP 지정 시설에서 선별과 도정, 포장 과정을 거쳐 상품화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15일에는 '첫수확 햇찹쌀(2.5kg)'과 '첫수확 햇현미(2.5kg)'도 선보이는 등 국산 햇곡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로또

4 5 25 28 32 42

로또 1등 10명…당첨금 각 30억1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4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5, 25, 28, 32,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30억65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1명으로 각 55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02명으로 16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17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6728명이다. 연합뉴스

